

# 정보사회서 불교계가 나아갈 길은?

### 교수불자聯, 7월 2일 하계 교수불자대회... 110여 교수 참석

정보화 사회에서 불교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준)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 경남 함천 해인사에서 110여 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교수불자대회를 개최했다. '불교사상과 현대정보'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다양한 불교계의 발전 방안이 대두됐다.

#### "디지털 매체 적극 활용"

김용환 총부대 교수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신대승운동의 필요성을 말했다. 김 교수는 "현대 정보사회가 접어들며 불교계는 새로운 대승운동이 필요해졌다"며 "인터넷을 적극 활용해 유무선 어디서나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지속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요즘 빅데이터 등을 이용해 서비스 패턴을 분석하고 있다. 불교계도 다양한 실험활동의 흐름을 조사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불교 DB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불교의 경전과 전적을 총망라해 디지털화 한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사업을 예로 들며 ABC사업이 다양한 포맷으로 개발돼 활용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기록관리 기관 및 시설도 이용자 서비스 최적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이용자 만족을 위한 자료의 품질 또한 다양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느림의 미학도 알려야"

이희재 광주대 교수는 역으로 정보화 사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해인사 하계 교수불자대회에 참여한 110여명의 교수들은 한국불교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회에서 부처님의 발자취에서 배우는 비움과 느림의 삶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재 교수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일상이 점차 더 빠르고 신속하게 변화하며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있다"며 "불교문화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비움'과 '느림'의 상징이 많은 만큼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재 교수는 오상조 불교사진작가의 인도 문화유적 사진을 활용해 불탑과 보리수 등에서 보이는 부처님 당시의 삶의 방식

을 되새겼다.

이 교수는 "탄생지인 룸비니의 농촌풍경과 아쇼카왕의 석주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중시하는 불교적 가치를 함유하고 있다"며 "부다가야의 대탑과 보리수 금강보좌의 문화재 속에서는 무상과 무아 그리고 열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여기에는 인간 실존의 의미가 담겨 있다"며 "정보화 사회 이면의 인간상실의 문제를 치유하는데 이러한 불교사상이 크게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고양 흥국사 대방' 등 6건 등록문화재로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7월 1일 '고양 흥국사 대방' (오른쪽 사진)을 비롯한 총 6건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했다.

등록문화재 제592호 '고양 흥국사 대방'은 정토 염불 사상이 크게 성행하던 근대기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 염불 수행 공간과 누·승방·부엌 등의 부속 공간을 함께 갖추고 대웅전을 실제적·상징적 불단으로 삼아 염불 수행을 하도록 구성된 독특한 형식의 복합 법당이다.

흥국사 대방은 1904년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의 모친 엄상궁이 아들을 위해 만일 대기회를 발원하고 증축한 역사를 담고 있다. 이번 등록문화재 지정에는 기존의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 복합적이고 기능적인 근대 건축의 성립을 보여주는 등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독특한 건축 형식, 공간 구성, 시대정신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등록문화재 제589호 '광주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 구 교사', 등록문화재 제590호 '광주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등록문화재 제591호 '서천 구 장항미곡창고', 등록문화재 제593호 '남양주 고안수위관측소', 등록문화재 제594호 '양평 지평양조장' 등이 지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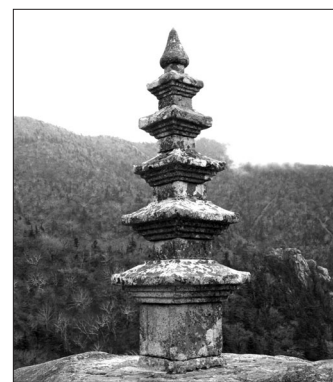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 봉정암 석탑·대곡사 대웅전 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의성 대곡사 대웅전'과 '인제 봉정암 오층석탑'을 각각 보물 제1831호와 보물 제1832호로 지정했다.

보물 제1831호 '의성 대곡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인 건물로, 1687년(숙종 13) 태전 선사가 중건했다. 건물 공포의 형태, 배면의 영쌍창(창호 중간에 기둥을 두어 창문이 두 개처럼 보이는 창), 외부 마루 흔적 등이 18세기 이전 건물에서 주로 보여지는 방식으로 의성지역 사찰의 시대변천을 살피는 자료로 평가된다.

보물 제1832호 '인제 봉정암 오층석



탑'은 봉정암 경내에 있는 높이 3.6m 규모의 석탑으로 자연 암석을 기반으로 삼은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노덕현 기자

## "중국 사원 의규, 명나라 때 와서야..."

절강성 사회과학원 법지 스님, 중국불교 소개

중국사찰에서 전해 내려오는 의규(儀規)가 명나라 말 통일 된 것으로 이전에는 중국인들의 생활에 맞게 변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절강성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객원교수 법지 스님은 6월 28일 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가 개최한 학술발표회에서 중국불교의 의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지 스님은 일상공과, 각종법회, 안거에 있어서 중국과 한국불교의 차이점을 말했다.

스님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예불에 해당하는 일상공과는 하루 두 번 올려져 한국의 세 번과는 다르다. 법회는 불타 탄생, 성도 법회 등이 있으며, 경·율장을 공양하는 법회, 일반 신도들이 복을 짓기 위한 보시대회(布施大會)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양무제 때 강소성 금산사에

서 시작된 수륙법회와 정월 초하루 미륵불성탄법회, 관음보살성탄법회, 아미타불성탄법회 등도 진행된다. 중국의 안거제도는 요진(姚秦)시기부터 시작됐으며 당송시기 안거제도는 점차 선종총림 창규 가운데 하나로 발전했다. 또 중국불교의 특색이 가미되고 겨울철 추운 날씨에 스님들의 외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하안거 제도를 본 따 동안거를 제정했다. 근대 일부 사원에서는 양해양결(여름, 겨울 모두 참구하는 것), 결하강경(여름철에 강경하는 것)을 하는 곳도 있다.

법지 스님은 "불교의 중국과 과정에서 많은 고승들이 당시 실제상황에 근거해 의규를 새로 만들고 발전시켰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 "사회시스템에 불교 참여 시키자"

조경철 연세대 교수 불교사회연구소 세미나서 주장

"오늘날의 인간소외 현상 등은 국가 시스템 하에서 종교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어 데서 기인한다. 종교, 특히 불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간소외를 비롯한 여러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반야 호국불교'다."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현대사회의 병폐를 해소하자는 주장이 대두됐다. 이른바 '반야 호국불교'다.



조경철 연세대 교수(사진)는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7월 2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고대불교와 국가' 학술세미나에서 "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의 반야로 나라를 지켜 중생을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를 살려 이제 반야호국불교라고 불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 고대의 불교와 정치'를 주제로 발표한 조 교수는 "호국불교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은 국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바를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조장한 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호국의 어원인 (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에

서 호국불교의 본 의미는 지혜로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것인 만큼 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불교가 권력을 갖자고 하거나, 방관하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체제가 하지 못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연식 동국대 사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남무희 국민대 교수의 '고대 불교와 왕권-신라 중고시대와 중대를 중심으로' △박광연 동국대 교수의 '신라시대 불교와 왕권' 등이 발표됐다. (02)730-0093 노덕현 기자

## 봉원사 아미타괘불도·범종 문화재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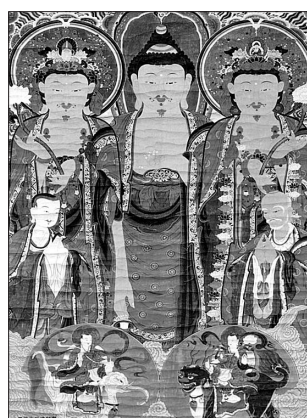
서울시는 고종의 후궁인 엄비가 발원, 시주한 봉원사 아미타괘불도(오른쪽 사진) 등 불교문화유산을 포함해 총 12건에 대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봉원사의 아미타괘불도는 1901년에 고종의 후궁인 엄비가 돌아가신 부모와 외가 조상 등의 극락왕생을 발원, 시주하여 봉원사에 봉안했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아미타불·관음보살·대세지보살의 아미타삼존 아래 권속인 가섭·아난, 사자를 탄 문수동자·코끼리를 탄 보현동자가 배치된 봉원사 아미타괘불도는 19세기 전통을 계승한 20세기 초기의 사찰불화로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화승인 덕월당 응륜(應倫)과 청암당 운조(雲照) 등 12명의 숙련된 화승이 공동 제작하여 각 세부 묘사 등이 상당히 정교하다는 측면에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지정고시에는 봉원사 범종도 포함됐다. 봉원사의 범종은 본래 1760년(영조 36) 가야사(伽倻寺)의 종으로 제작된 것이다.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에 있었던 가야사는 1884년 흥선대원군이 부친 남연군의 묘를 쓰면서 폐사됐다.

종이 옮겨져 지 된 구제적인 역사적 사



실을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충청남도 예산 가야사에 있었던 종의 서울 봉원사로 이운(移運)된 것이다. 이 범종은 주조상태와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할 뿐 아니라, 경상도 이씨일파의 대표적 장인인 이만들의 작품으로 명확한 제작연대와 후원 계층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18세기 후반 범종의 일반적인 양식이나 사력에 대한 계보 및 활동을 연구하는데 학술적인 가치도 높다.

한편, 이번에 지정고시된 유물 가운데는 한 사관의 무덤에서 나온 사초(史草) 등이 포함됐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사)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회장 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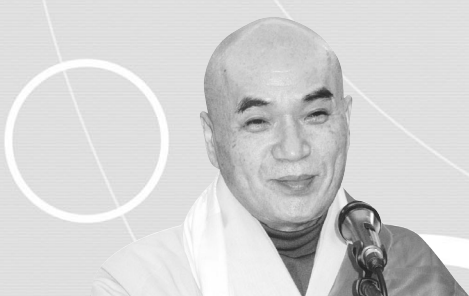


더 없는 감격의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온 누리에 전하며, 바른 언론으로 한국불교를 외호해 온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를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기뻐합니다. 더욱 큰 뜻을 이어 불교언론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시길 기대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사)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총무원장 삼주



20년의 청년불자로 성장한 현대불교신문의 지령 1000호 발행을 전 종도와 함께 봉축합니다. 한국불교 각 종파의 다양성과 함께해 온 현대불교신문의 성과는 곧 한국불교의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 이루시어 부처님의 혜명이 온 세계에 가득하여 지기를 기원합니다.